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  
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 보옵시며 주께 특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역대하 6:39)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02호 2012년 9월 2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이슬람원리주의 정권 득세, 반미정서 확산

### 미 언론, '이슬람 비하 영상물은 표면적 이유일 뿐' 보도

예언자 모하메드를 모욕하는 내용의 미국영화로 촉발된 이슬람권의 분노가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9.11 테러 11년째를 맞는 지난 11일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반미시위가 종교 집회가 있는 금요일(14일)을 거치며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퍼졌다. 또한 시위가 확산되면서 애초 미국 공관에 한정됐던 시위대의 공격대상도 독일과 영국 등 일부 서방국 공관과 군부대, 학교, 식당 등으로까지 범위가 커졌다. 알지라 방송은 미국영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할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은 물론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아시아 이슬람국가에서 벌어졌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으며 특히 독일 대사관은 시위대가 지른 불로 화염에 휩싸이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영상물(Innocence of Muslims)이 유튜브를 통해 촉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동에서 세속주의 정부들 무너진 뒤, 지연되는 민주주의 정착에 따른 좌절로 인해 극단적 원리주의가 득세하면서 확산된 반미 정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역할 즉 대선을 맞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동정책이 시험대로 오르게 됐다.

9.11테러 11주년인 지난 11일 리비아 벤가지의 미국 영사관이 무장한 시위대에 가습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했다. 공격의 발단은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14분짜리 영상물이었다. 로스앤젤레스 부근 세리토스에 사는 콥틱 신자인 나콜라 배슬리 나콜라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물은 유튜브를 통해 아랍권으로 퍼졌다. 아랍권에서는 이 영상물이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며 격분하고 있다. 리비아를 비롯해 이집트 튀니지 예멘 등지에서도 연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아랍권의 반미 정서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리비아 주재 미국대사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을 제공한 유튜브 영상물 '무슬림의 순진함'의 한 장면

짜리 영화의 일부이다. 지난 7월 초 처음 공개됐을 때는 별다른 문제를 조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아랍어 더빙 버전이 유튜브에 다시 실리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아랍권의 분노를 야기한 부분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묘사다. 영상물에서 무함마드는 여러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아동성을 승인한 변태성욕자이고 무책임한 가장이자 피 묻은 칼을 든 도살자도 묘사된다. 서구의 문화 창작물에 대해 아랍권이 격분한 것은 1989년 영국의

소설가 살만 루슈디의 소설 '악마의 시'가 발표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루슈디를 살해하라며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리비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예멘 등 아랍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지만, 특히 극심했던 곳은 리비아였다. 리비아에서 사태가 커진 것은 리비아 정부의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비아에서는 수십 년간 독재를 해온 무아마르 카다피의 세속주의 정권이 지난해 혁명으로 몰락하고 이슬람 원리주의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부족 간 갈등으로 아직 권력의 중심점이 이슬람 원리주의 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졌고 사건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최근 아랍권에서 반미주의가 확산된 것은 다소 예견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아랍국가 정부들이 혁명을 통해 세속주의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로 급격하게 정세변화를 겪고 있는 데다 현지 미군이 자존심 강한 아랍인들을 잇달아 자극하고 있어서다.

(3면으로 계속)

## "선교적 교회" 이끌어가는 원동력

### UMC, 급변하는 세상...효과적인 목회 방향설정 위한 신조어 소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술사용의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첫 번째 단어는 "초연결(hyper connectivity)"이라는 단어다. 초연결이 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몸이 어디에 있는지 - 직장에 있는지, 휴가 중 집에 있는지, 식당에 있는지, 침대에 누워 있는지, 심지어 예배처소에 있는지 - 항상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점점 더 그들의 개인생활과 회사생활이 통합돼 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통신기기가 더 많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잘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초연결된 전문가들은 현재 전체 직장인구 중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수년 안에 40%까지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웨저 시대"라는 단어다. "말레니어들은 이전 세대들처럼 직장과 가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직장은 생활의 일부이지, 생활과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이룬다는 생각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의 맞지 않는 것이다."

웨저(weisure)는 '일(work)'과 '레저(leisure)'를 합성한 신조어다. 발달한 무선기술을 활용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물론, 백

초연결(hyperconnectivity): 몸이 어디 있든 항상 접속

웨저(weisure): 일과 레저 구분 안하고 곧바로 일해

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고 등산을 하다가도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이용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지칭한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목회 사역에 아주 중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이든 세대는 세속과 종교적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자랐다.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했고, 나머지 6일은 직장과 가정 생활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했다. 예배 때 세속 문화로부터 나온 음악은 환영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오직 신성한 음악만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의 결과, 종교는 개인적인 영역이 됐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이런 구분에 개의치 않는다. 그들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은 일주일 내내 그들의 직장생활과 시간 사용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미디어 가려보는 지혜를 가르치려!



7면

투고 칼럼  
박용택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9면

본사방문  
이재근 목사(주사랑선교회)



16면

선교사와의 만남 (4)  
보이즈프로젝트 대표 지용주 목사



## 21세기 건강한 교회를 위한

# 제1차 한인 목회자·선교사 국제 컨퍼런스

미국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지인 미시간의 Calvin 신학교와 Western 신학교에서 저명한 신학교수들과 훌륭한 목회자들을 모시고 "건강한 교회와 설교, 건강한 교회와 리더십,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 양성, 건강한 교회와 세계선교, 건강한 교회와 예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제 1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국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한국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의 미국유학을 위한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 담당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하는 시간도 있으오니 한인 선교사와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Western 신대원총장  
Dr. Timothy Brown



Calvin 신대원 총장  
Dr. Julius Medenblik



Puritan Reformed 신대원 총장  
Dr. Joel R. Beeke



Calvin 신대원신약학교수  
Dr. Jeff Weima



Calvin 세계선교연구원장  
Dr. John Kim

- 일 시: 2012년 10월 29일(월) - 11월 1일(목) 4박 5일
- 장 소: 미국 미시간 Western 신학교, Calvin 신학교, Puritan Reformed 신학교
- 강 사: Dr. Tim Brown(Western 신대원총장), Rev. Julius Medenblik(Calvin 신대원총장), Dr. Joel Beeke(Puritan 신대원 총장), Dr. Jeff Weima(Calvin 신대원교수) 외 저명한 목회자

- 참가대상: 해외 한인선교사, 이민교회 목회자, 한국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 참 가 비: 해외 선교사 \$300 (부부 \$500)/ 이민목회자 \$400 (부부 \$700)/ 한국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500 (부부 \$900)
- 등록마감: 2012년 9월 30일
- 등 록: (한국)외환은행 구좌 611-020269-502 (김연택, 칼빈세계선교연구원) 미국) Check payable to "The Holland Korean Church"
- 참가신청: 참가자 이름(한영), 교회(선교기관) 주소, Email & 전화번호, 이메일로 신청
- 특기사항 1. 미시간, Western Seminary, Calvin Seminary, Puritan Reformed Seminary, Hope College, Calvin College 를 방문하고 목회자 유학 및 학위과정에 관한 상담시간이 있습니다. 2. 시카고의 Billy Graham Center, Wheaton College,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Moody Church, Moody 신학교, Trinity University (Deerfield) 를 방문합니다. 3. 세계적인 기독교 출판사 Baker와 Eerdmans 출판사 서점에서 원서구입을 안내합니다. 4. 유학생 담당자를 모시고 선교사 자녀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 컨퍼런스후의 일정 안내 및 홀란드한인교회에서 잔류를 안내합니다. 6. 출도착: 미시간 Grand Rapids International Airport 공항, 도착, 10.29.(월), 출발, 11월 2일(금) 7. 문의: 칼빈세계선교연구원 김연택박사 (전화 616-795-8047, Email: johnkimsma@gmail.com)

- 주 최: Calvin Institute of World Mission, The Holland Korean Church
- 협 찬: Western Theological Seminary, Calvin Theological Seminary, Puritan Reformed Seminary, CRC Holland Classis, RCA Holland Classis, Hope College, Calvin College, Geneva RCA Conference, Holland City Council, The First Reformed Church, Bethany Christian Reformed Church, 미주크리스천신문, 유럽크리스천신문, 오렌지 생명의 말씀사, 칼빈세계선교연구원, 홀란드한인교회

칼빈 세계 선교 연구원  
Calvin Institute of World Mission

원장 김 연 택 박사  
President, Rev. John Kim, Ph.D.



시론

네, 멀고도 가까운 사람, 가깝고도 먼 사람



양중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자신들의 결혼 50주년 파티를 잘 마치고 돌아온 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스낵을 하기로 하였다.

식빵을 구워 토스트와 함께 티를 마시기로 하고 남편이 먼저 들어가 새로 사온 식빵봉지를 열어 끝부분 조각(the heel)을 꺼내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지난 50년 동안 식빵 끝 조각을 늘 내게 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이 심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여보, 식빵의 끝 조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부부가 같이 살면서 서로가 가깝고도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살을 맞대고 살지만 대화가 없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과 관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다보면 누가 정말 탕자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통 생각하는 둘째 아들, 아버지로 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가 물론 탕자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둘째 아들은 멀리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집에 와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 반면에 맏아들은 아버지와 한 지붕아래 있었어도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나,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일 때에도 맏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 동생에 대한 미움과 저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맏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는 가깝고도 먼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오히려 멀고도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없이 교회의 지붕 아래 머물러 있다면, 밭에 나가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던 맏아들과 같이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가깝고도 먼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눅15:20).

미디어 가려보는 지혜를 가르치라!

카리스마, 크리스천 가정의 미디어 테러리즘 홍수 대처방법 제시

얼마전 콜로라도와 위스콘신에서의 총격 대량 살상사건은 미디어에 드러난 폭력성에 노출된 사회가 얼마나 모방범죄에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폭력영화를 보고 영화에 묘사된 그대로 사람들 살해하게 되는 상관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영화나 TV 또는 뮤직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바로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거의 미디어에 드러난 폭력이나 선정성을 모방하게 되고,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십대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더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미디어를 규제하고 제어하는 차원에서 크리스천들은 소극적으로 방어하지 말고, 거의 테러 수준에 가까운 선정적 미디어 범람에서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보수적인 크리스천 매거진 카리스마(Charisma)지는 크리스천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미디어로부터 자유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Protecting Your Family From Media's Sexual Terrorism).

빌보드 차트 탑 10위권 안에 드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또 폭력적인 장면들이 단순히 극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영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런 뮤직비디오는 비디오 대여점이나 케이블방송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어 선정,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미디어에 드러난 선정성 때문에 십대들이 이를 모방하고 따라하는 등 인격이나 행동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과거 연구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최근 다투마스 대학교는 16세 이전의 십대들이 영화를 통해 노출된 선정성(MSE, movie sexual expo-



지먼트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허리우드 영화 관계자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소통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 즉 세속적 세계관의 정의와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어떠한 세계관으로 다가오는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는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만약 아이들이 사춘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부모나 다른 롤 모델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야말로 폭력적, 선정적 미디어에게 그대로 노출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창조성 갖도록 지도  
선정적 폭력적 미디어는 보지 않게 해야

sure)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다툼스 대학교는 2005년에 발표된 연구(Gunasekera, Chapman, & Campbell, 2005)의 결과로부터 설문 조사를 시작한다. "1983년부터 2003년에 개봉된 영화들 중 70%는 만년 지 얼마 안 되는 이성의 성에 관한 묘사나 적나라한 행위가 드러난다. 그리고 90%는 피임도 없이, 89%는 아무런 결과 없이 성 행위만 드러난다."

2005년 연구는 "이러한 대중 영화들을 보는 사춘기 십대들은 성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비현실적이며 충동적이라는 사실이다"고 경고한다.

결국 다투마스 대학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000명 이상의 사춘기 십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다. 즉 10-14세 십대들이 본 영화 50개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미 결과는 예측된 대로, 16세 이전에 성 경험을 한 십대들은 성을 나눈 대상을 삶을 같이 이루어가는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충동적으로 같이 자는 관계라고 응답했다.

또한 십대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심각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들은 심지어 영화에서 본 장면들을 현실에서 이루어보고자 하는 모방 심리가 더욱 왕성했다.

결국 허리우드식 사랑과 성은 한마디로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결과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성 행위인데도, 이를 따라하는 십대들에게는 접촉으로 인한 질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만을 가져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춘기 십대들은 실제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영화에서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투마스 대학의 연구 결과는 적절한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

한다. 즉 사춘기 십대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선정성(MSE)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멀어질 것을 충고한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으면, 성에 대한 안전하지 않은 개념이나 활동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크리스천 미디어 전문가들 역시 다투마스 대학교의 결론에 동의한다. 이들은 수년전부터 크리스천 가정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미디어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충고하고 있다:

1. 자녀들에게 미디어를 가려볼 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미디어를 가려볼 줄 알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고, 해석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성격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창조해야 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분석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영화 제작과 스토리텔링의 매개체가 무

2. 자녀들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 받은 피조물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감독이나 작가로 부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창조성은 자녀들로 하여금 미디어를 분석,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서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선하고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3. 미디어 영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선정적, 폭력적 내용을 가진 영화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충분할 정도의 죄와 비도덕적인 것들을 본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플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3.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 '미국=기독교' 중동지역 크리스천들 불안가중

## 미 언론, '이슬람 비하 영상물은 표면적 이유일 뿐' 보도

(1면에서 계속)

올해 초 시위로 40명의 사망자를 낸 아프가니스탄 코란 조각 사태가 대표적이다.

수십 년간 세속주의 정부의 억압을 받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은 작년 각국의 혁명을 주도하면서 세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일어난 '자스민혁명' 이전만 해도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한 곳은 혁명을 통해 신정이 들어선 이란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미국과 서방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했던 아랍권 세속주의 정부들이 잇달아 무너지자 대안으로 원리주의가 힘을 얻게 됐다.

튀니지의 경우 작년 하반기 치러진 총선에서 온건 이슬람주의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섰다. 예멘은 극단



림의 순진함)가 갖는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극단주의적 무슬림 세력들이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 국제적으로 공권력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가 당분간 지속하고 더 나아가 악화할 수도 있다고 비판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이 무슬림 선지자 모하메드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아랍의 봄 이후 무슬림 내 자리한 반미 정서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를라호마 대학교 중동지역 연구를 맡고 있는 조수아 랜디스 교수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동지역 독재자들이 미국과 친밀한 관

## 온건 이슬람주의정부, 과격이슬람세력 영향력 확대통로 마련 경제해결력 부족...경제 나빠지면 다시 군부쿠데타 가능성도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멘은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본거지가 된 상황이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주의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총선에서도 원리주의 정당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아랍에서 원리주의가 다시 주목 받는 이유는 그간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세속주의 정권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해석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쿠데타 등으로 정권을 잡은 세속주의 정권은 경제개발을 내세우고 친서방적인 외교, 경제 정책을 폈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혁명 전 튀니지의 실업률은 15%에 달했고 예멘의 실업률은 약 13%까지 치솟았다. 또한 이집트 튀니지 등 친미 세속주의 정권이 서방의 개입을 과도하게 용인하자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온 것도 반미 정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슬람 원리주의의 정부가 곧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속주의 정부 때보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는 "세속주의 정권을 대체해 이슬람주의 정권이 들어섰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다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중동정세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아랍권에서의 반미 정서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잇달아 중동정책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집트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슬람주의 정권과 군부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이집트 국민들의 반미 정서에 불을 붙였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이집트 등지의 이슬람주의 정권들이 과격 이슬람주의와 반미주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구심이 커지

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WINEP)의 패트릭 클로슨 연구장도 "온건 이슬람주의 정부가 더 과격한 이슬람 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동에서 반미 시위는 확산될 조짐이다. 이집트 최대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지난 12일 대규모 시위에 이어 14일에도 문제가 된 영상물을 비판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알제리 튀니지 예멘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예멘에서는 시위가 대가 미 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한 명이 사망했다. 시위는 아시아지역 이슬람 국가로 번지고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한다. 한마디로, 해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이 영화(무슬

림의 순진함)가 갖는 파급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극단주의적 무슬림 세력들이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랍의 봄' 이후 국제적으로 공권력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가 당분간 지속하고 더 나아가 악화할 수도 있다고 비판적인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국이 무슬림 선지자 모하메드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아랍의 봄 이후 무슬림 내 자리한 반미 정서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를라호마 대학교 중동지역 연구를 맡고 있는 조수아 랜디스 교수는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중동지역 독재자들이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갖으려고 했기 때문에, 중동지역 내 민주화 운동이 성장하면서 그동안 억압받던 무슬림들 사이에 향후 더 많은 반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동권에서의 미 대사관 공격은 이미 예견됐던 사건이었다. 크리스천포스트지에 의하면 지구촌에서 크리스천들의 박해 상황을 주시하는 선교기관(Open Door USA)은 이미 크리스천들이 소수 집단이 중동지역이나 북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미 대사관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오픈도어스 대변인 마이클 우드는 "이슬람을 비하하는 영상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반미 시위를 벌일 정도로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미국과 기독교는 같다고 여긴다"며 더욱 더 불확실해진 미래를 사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2면에서 계속)

따라서 안방까지 그런 세상의 온전하지 못한 죄악들을 들여 올 필요가 없다. 영화들이나 미디어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 폭력, 거친 언어 그리고 반 기독교적 가치들로 가득 찬 미디어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1면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주일에만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연결돼 있다. 타인은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그들의 질문과

아이디어와 초정에 응답 내지는 반응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한다. 회중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 궁극적인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을 제공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장하게 된다. 즉 그들의 일상적 삶이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은혜라는 영원한 메시지와 연결될 때 회중은 성장하는 것이다.

즉 교회 사역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압도되기도는 오히려 사람들이 믿음과 행동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계를 생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새소망 칼럼

### 힘을 바로 써야 참된 행복을 누린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독오당은 "사람답게 살려면 몸을 구부리라"고 하였다. 성경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빌2:4)고 하였고 솔로몬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의 축복이 따른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재물을 목적으로 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목적으로 삼기는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재물임을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겸손한 자는 재물뿐만 아니라 영예도 얻게 된다(잠29:23).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약4:10).

유명한 흑인 교육자 부커 워싱턴 박사가 알라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그 지역의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그가 워싱턴 박사인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흑인이려니 해서 멈춰 세우고 몇 달러 줄 테니 장작이나 패달라고 요청했다.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었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주었다. 일이 다 끝나 그가 돌아간 후, 그 집 흑인녀가 그를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백배사죄했다. 그러자 부커 워싱턴 총장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하고 위로를 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비결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노벨상에 버금가는 막사이사이상이 있다. 막사이사이상은 필리핀의 대통령인 막사이사이(1907-1957)를 기념하여 제정한 상으로 아시아에서는 노벨상만큼 권위 있는 상이다.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필리핀 국민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번은 지방 순례를 하던 때에 차를 타고 가던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길가에 고장 난 트럭 앞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그는 갑자기 비서관에게 차를 세우라고 명령하더니 그 고장 난 트럭바퀴 밑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얼굴과 옷에 시커먼 기름을 묻힌 막사이사이가 나왔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트럭운전자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 직업은 본래 트럭운전자였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겸손이다. 진정한 힘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쓸 때 보석처럼 빛이 난다. 그럴 때 그는 더 강하고 권위가 있다. 참으로 강한 자는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강자의 미덕이다. 막사이사이의 그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정치가가 국민을 위해 정치가로서의 권위를 버릴 때 우리의 사회질서는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크신 능력을 죄와 사망의 노예 된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전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을 대신하여 정죄 받고 매 맞고 침 뱀을 받고 온갖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온유와 겸손을 실천해 보이셨다. 당장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악한 무리들, 악의세력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지만 온유와 겸손, 진정한 사랑과 대속의 심자가를 지시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힘 세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힘과 그분의 참된 인류 구원 능력을 발견한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것도 자기 과시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아짐의 방법으로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과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성해 보아야겠다. 나의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힘을 바로 써야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 엘에이 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0월 1일(월)-5일(금)  
강의제목: Counseling for Modern Christian Ministers(현대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상담)  
교 수: Dr. Ken Bickel  
장 소: 세계로 비전교회(담임 조요환목사)  
3102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연 락 처: 허귀암목사(usa8291@gmail.com, 전화: 714-308-7308)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 한국강의 안내

일 시: 2012년 11월 12일(월)-16일(금)  
강의제목: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교 수: Dr. Tom Stallter  
장 소: 경남 하동세일교회(담임 오정훈목사)  
- 한국강의에 대한 문의사항은 본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5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I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 온라인 강의(8주간)

- Doctoral Courses(박사과정)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MA Courses(석사과정)
  -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스트레스’라는 것

어른이고 아이들도 할 것 없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는 말을 한다. 생각해보면 요즘 속에서 도시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또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인간과의 갈등 속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심장도 나빠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또 위장병도 생기고 심지어 암까지 생긴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심지어 의도도 하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보지만 스트레스를 해소

하려고 하다가 그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황성주박사가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동안은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황성주 박사는 스트레스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이다. 나쁜 스트레스는 피해야 하겠지만 좋은 스트레스는 양념처럼 어느 정도 있어야 인생의 활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거기에 양념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곤란하다. 그러나 양념을 적당히 넣으면 음식이 맛을 내듯이 우리 삶속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또 어떤 스트레스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도 제목도 없고 의욕도 없다. 마치 태엽이 풀린 시

계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요트 경기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를 몰고 가는 경기인데 초보자는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바람에 휩쓸려 넘어진다. 그러나 노련한 사람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불수록 더 좋단다. 왜? 그 바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일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시는 다윗이 암살로에게 쫓겨났을 때 썼다. 암살로는 누구인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자기 아들 암살로에게 모반을 당하고 다윗이 궁중에서 빠져나와 맨발로 도망치고 있다. 믿었던 참모들마저 아들

편에 붙는가 하면 백성들마저 자기 에 등을 돌리는 것 같다. 하나님마저 자기를 버린 것 같다. 다윗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이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큰일 났습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절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너를 어려움을 주실 이가 있겠는가? 라는 엉뚱한 생각을 넣어준다. 이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증거다. 너는 틀렸다 포기해버려! 그런 치명적인 생각을 슬그머니 넣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 기도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할 용기마저 잃게 되었을 때 그때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43편에 나온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난 중에 있는가?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다. 왜 내게 문제를 주시는가? 주님께 더 가까이오라는 신호인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혼자 지고 믿음하며 고통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란다. 그 염려와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 푸/ 른/ 초/ 장

**변영익 목사**  
(벤엘장로교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섬긴다는 말 안에는 첫째로 바르게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해도 그 섬김이 바르지 못할 때에는 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분쟁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분쟁은 바르게 믿지 못해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진 교회이며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전통성이 없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교회는 일시적으로 파견된 지도자들이 가르치다가 때가 되면 또 떠나 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 대한 애정도, 존경심도, 크게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마25:42에 보면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갠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까”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대답은 매우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수평적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교회는 유대인들과 현재의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중 여러 가지 부딪침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을 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당시에는 노예들이 이 사람은 노예라는 낙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이 병사는 누구에게 속한 군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말은 나는 예수의 사도로 인칭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성령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루스라에서는 돌에 맞아 온 몸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있는 사람이며,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에 걸려 고생한 많은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할지언정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주님을 잘 섬기는 자 갈라디아서 6:6-18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먼저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교회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각가지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대단히 열심히 잘 못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섬긴다는 말은 무조건 열심히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없는 초신자들이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히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첫 번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 1. 지도자와 함께 하는 자

바울은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기도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자기를 지도하는 자와 늘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본문(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세워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역시 섬김이 없는 문제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수직적 섬김이 아니라 수평적 섬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25:41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무서운 저주를 받을 자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섬기는 방법은 자기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 하나님을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대로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거짓 지도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지도자 바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 2.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본문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므로 마24:13에서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 3.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본문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 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메섹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메섹의 흔적이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은 흔적이 있어야 하고 눈물을 흘려본 눈물의 흔적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흔적이 없이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지도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 제32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안내

해군 중앙교회 장로, 전 해병대 부사령관, 예비역 해병소장  
전 한국 해병대 부사령관이시며 기적과 축복의 삶을 체험한 믿음의 장군, 김기홍 장로님을 초청하여 제32차 미주 추계 간증성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2년 10월 18일 ~ 12월 9일

### 제32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일정

일 시	교 회	담임목사	지역
10/18(목) ~ 10/21(주일)	시온연합감리교회	구진모	CA
10/25(목) ~ 10/28(주일)	주님의빛교회	주역로	CA
11/ 2(금) ~ 11/ 4(주일)	갈릴리 은혜교회	구본철	CA
11/ 8(목) ~ 11/11(주일)	갈보리 선교교회	심상은	CA
11/15(목) ~ 11/18(주일)	에니아임 장로교회	신은석	CA
11/22(목) ~ 11/25(주일)	호산나교회	라계영	CA
11/30(금) ~ 12/ 2(주일)	타이드 워러 한인 침례교회	조낙현	VA
12/ 7(금) ~ 12/ 9(주일)	풍성한교회	윤병남	MD



강 사 : 김기홍 장로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는 (02)842-3313로 연락 바랍니다.

● 웹사이트 : www.kimkihong.com

### 간증성회문의처

▶ ●서울 : 김기홍 장로(02)842-3313 ● 셀폰 (010)8929-4333 ● 팩스(02)848-3315 ● 미주 (551)655-4224

# 교육칼럼

## 다음세대(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5

###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요즘 한국 가수 사이가 발표한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이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BC 모닝뉴스 '투데이쇼'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미국의 여러 TV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와 방청객들까지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며 '강남스타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도 '강남스타일'로 들쭉들쭉합니다. LA 할리우드에서도 인종과 국적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강남스타일'을 열창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본 사람이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남한국민이 겨우 5천만인데 우리 인구의 4배가 넘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강남스타일'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표현해 예술적으로 논할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 노래와 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상함이나 절제된 아름다움보다는 자신을 깨뜨려 내려놓음으로 남을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습니 다. 그리고 복잡함보다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강남스타일'을 가지고 서두를 꺼낸 이유는 '문화선교'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체제 그리고 문화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선교방법이 결코 같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극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계속해서 아이들의 생활 훈련과 영적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나이와 학년 그리고 지적능력 과 신체발달심리가 고려된 커리큘럼과 체험적 신앙을 길러줄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스(Source)가 없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총격요법도 필요하고 단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Follow Up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계속해서 아이들의 생활 훈련과 영적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나이와 학년 그리고 지적능력 과 신체발달심리가 고려된 커리큘럼과 체험적 신앙을 길러줄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스(Source)가 없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 총격요법으로는 평생 신앙 좌우 할 수 없어 눈높이 맞춘 단순하고 반복적인 접근 효과적

선교대회가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대회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텐트 메이킹(Tent Making)에 관한 관심사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킹은 갈수록 경제적 난관 때문에 줄어가는 선교지원으로 인하여 자비량선교 또는 전문인선교 등 선교사 스스로 재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선교의 고정관념을 깨고 선교의 효율성을 위해 과감하게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이 연구되어왔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오던 구제나 의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전 선교지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전략은 아직 미흡하지만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하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선교대상이 되

주인식교육이나 세뇌교육이 안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국, 한국 같은 풍요로운 나라에서 미디어와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환경에서 Physical World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상당히 많은 시간을 e-World(사이버)에서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주기 위해 단기선교 등을 시행하는데 선교현장에 가서는 아이들이 자극도 받고 감동도 받아 곧 선교사로 나갈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문화적 자극과 더 큰 충격이 오면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격요법으로 아이들의 평생 신앙을 좌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무엇인가는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인가 했다는 데서 프로그램은 끝나고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만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귀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차세대운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형 박사를 초청하여 자녀교육 세미나 및 주일학교교사 세미나를 9월28일(금)부터 10월1일(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갖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개발된 교재를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의 책임이 결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더 많은 시간을 학교와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식전달의 역할 외에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신앙교육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부모들이 살기 위해 바쁘고 또 아이를 모르고 교육방법을 몰라 자녀교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을 위해 자녀교육 세미나를 겸하여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그리고 부모 자신을 위해

서라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꼭 참석하여 교회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교육선교와 문화선교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 서 '강남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오늘날 문화를 포스트모더니즘문화라고 합니다. 50-70세대가 살던 모던이즘은 산업화시대로서 개성보다는 군중이 중시되던 시대요, 하나의 리더에 의해 군중이 따라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40세대는 어떤 리더가 일어나 그들을 통합하고 확립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개인적인 선택을 중시하고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흠여지는 세대를 아우르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이슈가 그들을 연결하고 한 데 묶어 그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즐기다가 그 문화가 싫어지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흠여지는 것이 포스트모던이즘의 특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호흡과도 같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려면 먼저 그들의 문화적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나 당회원이 되는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공동체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안목이 무엇인지요? 이민교회들이 같은 지체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다툼과 싸움으로 화평이 깨지기 쉬운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요?  
-나성에서 김 장로

**A:** 여기에 두 가지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안목은 첫째로 균형 감각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자전거 타기의 핵심은 Balance 즉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전거 타기처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균형이 잘 잡힌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전통과 개혁의 균형, 은혜와 진리, 법과 사랑의 균형 등입니다. 교회의 담임목회자나 당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로컬을 보면서도 글로벌을 보고 글로벌을 보면서도 로컬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의 화평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체들끼리의 "화평"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수가 많고 적은

### 균형 잘 잡고 비본질적 문제로 화평 깨지 말라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공동체의 생명입니다.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와서 앉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는 새 가족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세리토스에 이사 오려고 집을 찾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부동산업자에게 집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이 괜찮은 집이 찾아지자 나중에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 조용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도 하나 소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화평한 교회로 교회의 분위기를 세우려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생명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로마교회는 로마서 14장을 보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돌로 갈라져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수준이 낮은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의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adiaphora, matter of indifference)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단적인 교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간직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견차이로 믿는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생명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에 찬송가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매장해야 하니 화장해도 되느냐? 침례냐 약식세례냐? 등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essentials)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좀 달라도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JoyLA.com

**Sale**

# 추제별성서대전

## 80% OFF

32 Set 한정특가판매 ( 1set 12권)

~~\$750.00~~  
**\$150.00**

스트롱 원어코드

## NEW 성구사전

개역개정판

360,000점이 수록된 혁신적인 성구사전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원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

로고스 STRONG COD

## 히브리어·헬라어 사전

HEBREW-GREEK  
DICTIONARY  
개역개정판

로고스 NEW 성경사전

## LOGOS BIBLE DICTIONARY

개역개정 개역한글 새번역 공동번역

히브리어, 헬라어를 정기간, 원어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함  
어려운 단어를 구별마다 대표어 명기함, 단어에 스트롱코드를 붙여 활용도를 높임  
단어에 한자와 영어를 명시하여 이해를 도움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한인교회 정기총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재도 목사) 정기총회가 9월 24일(월) 오후 6시 뉴저지소방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388-0511

퀸즈장로교회 추계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주최하는 추계 선교바자회가 10월 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 교회 지하천교실과 파킹장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 필라지회 조국사랑 특별기도회

(사)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 필라지회(회장 고백원 목사)가 9월 25일(화) 제 14차 조국사랑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문의: (215)402-9922, (215)668-3599(회장)

Jesus Gospel Jazz Band 단원모집

Jesus Gospel Jazz Band(대표 유상열 목사)가 단원을 모집한다. 교회 내의 경배와 찬양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전파의 열정과 재즈음악에 관심을 가진 자로 기초악보를 읽을 줄 알면 된다.

▲문의: (917)862-0523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뉴프른생명나무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조항석 목사의 개척10년 임기가 2013년 2월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개척의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의욕이 있으며 교단(CRC)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고 목회경험 있는 후임을 찾고 있다.

▲문의: egreenchurch@gmail.com

제 26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뉴욕예술가모임교회(회장 서병선)가 주최하는 제 26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가 10월 14일(주) 저녁 6시 플러싱 JHS 189 중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463-5555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주제

필라복음화대회 성료, 강사 원팔연 목사



집회에 앞서 강사 원팔연 목사(왼쪽)와 이대우 회장이 기념촬영 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일정은 저녁집회 외에 금, 토 2일간 새벽기도회, 금요일 오전 목회자 세미나, 토요일 오전 청지기 세미나가 열렸다.



이영훈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수제일주의로 살면 삶에 축복 있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영훈목사 초청 대성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지난 11일 저녁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 초청 성령충만 치료 대성회’를 열었다.

사람이다. 성령충만은 말씀충만과 함께 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다.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29회 정기총회

새 지방회장에 박마이클 목사, 부회장 김영환 목사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가 지난 11일 한마음침례교회(담임 박마이클 목사)에서 29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지방회장에 박마이클 목사를 선임했다.

관례에 따라 부회장 박마이클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무기명 투표에 의해 부회장에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담임)가 선출되고 △총무 이재홍 목사(에벤에셀선교회) △서기 이선일 목사(뉴욕안디옥침례교회) △회계 박진하 목사(퀸즈침례교회) 등 임원진도 구성됐다.

회장 박마이클 목사는 한 회기 동안 △회원 간의 화합과 회복 △개척교회 후원 △선교와 청소년 사역 집중 등의 사업방향을 밝혔다.

총회에 앞서 열린 경건회에서는 최창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스가랴 11장 4-9절을 본문으로 지도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오른쪽부터 박마이클 회장, 김영환 부회장

뉴욕한인지방회에는 24개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38회기 정부회장 후보 마감

회장 김종훈 목사, 부회장 김승희 목사 등록

지난 14일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제 38회 정부회장 후보가 마감됐다.

회장후보에는 현 부회장인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부회장 후보에는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가 각각 단독 등록했다.



▲김종훈 목사 ▲김승희 목사 ▲이대연 장로

교협 선관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9월 24일 서류심사 및 후보자 언론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놓고 각각 2명이 경선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단독 입후보자들은 총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뉴욕교협 정기총회는 10월 22일(월) 뉴욕에일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3개교단 목회자들이 배구 경기를 하고 있다.

PCA, RCA, C&MA...“연합의 아름다움”

뉴욕일원 3개 교단 목회자연합 친선체육대회

미국 교단에 소속된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모여 갖는 제 2회 목회자 교단 연합체육대회가 지난 17일 알리슨파크에서 열렸다.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지용 목사 사회로 안성용 목사 대표기도, 송홍용 목사 설교(“연합의 아름다움”, 시133:1-3), 오태환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Large directory of churches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denominations like Presbyterian, Baptist, etc.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관 제11회 창작성가의 밤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큰 기쁨”

####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제11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미선 교수) 주관 제11회 창작성가의 밤이 나성사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미주한인창작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본 협회 수석부회장 조성환 목사(남가주사랑교회) 개회기도로 시작된 밤의 밤은 원서연합감리교회 찬양대(지휘 김미선)가 ‘주님의 손길’(고영준 작사, 국현 작곡), ‘다윗의 돌 하나’(김신용 작사, 황현 작곡), ‘기도’(김주경 작사, 권희원 작곡) 등을, 한이름교회(지휘 이경호)가 ‘예수, 우리 주여’(남정숙 작사, 이혜경 작곡) 등을, 한인기독교합창단(지휘 백경환)이 ‘골고다 언덕엔’(정정숙 작사, 권길상

작곡), ‘여호수아의 고백’(이종만 작사, 이호준 작곡), ‘기도’(최선호 작사, 백경환 작곡), ‘협한 시편 묵속에서’(Anonymous, 백경환 편곡) 등을, Choral Alchemy of LA(지휘 박신실)가 ‘그날’(이인종 작사, 조성원 작곡) ‘은혜로운 길’(조준 작사, 지성신 작곡), ‘하나님 우리를 위해’(오영래 작사, 백낙금 작곡) 등을 불렀다.

이날 김미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큰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번 창작성가의 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비전교회 이웃초청 전도대각성부흥회에서 찬양팀과 김영빈 목사가 찬양을 드리고 있다.

### “구원의 즐거움과 열정 사랑 회복”

#### 세계비전교회 이웃초청 전도대각성 부흥성회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영빈 목사) 이웃초청 전도대각성 부흥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됐다. ‘회복 시키소서’란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성회는 “구원의 즐거움과 열정,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성회로 이어졌다.

첫날 집회는 김영빈 목사 사회, 라태한 장로의 기도로 시작돼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감절의 능력 받아 땅 끝까지’(왕2:8-14)란 말씀을 들고 단애 선 한기홍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날 새벽과 저녁집회는 김기동 목사(소중교회 담임)가 강사로 ‘열려있습니까? 믿으십니까?’(마6:31-34), ‘머물고 있습니

까? 전진하고 있습니까?(신8:1-4)의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날 집회는 본 교회 담임 김영빈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세계비전교회는 지난 7월 본 교회 2대 목사로 김영빈 목사 청빙, 취임예배를 드린바 있으며 ‘말씀이 살아있는 행복한 교회,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기쁨의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꿈꾸며 회복과 부흥을 이뤄가고 있다.

(이성자 기자)

### 은혜한인교회 역사수록 30년사 발간

#### ‘성령의 능력 받아 땅 끝까지’ 출판 감사예배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의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수록한 은혜의 30년사 ‘성령의 능력 받아 땅 끝까지’를 출판하고 감사예배를 드



WMU음악과 장학기금마련 초청연주회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넬 말란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다.

### WMU 음악과 장학기금마련 초청연주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WMU 음악과 장학기금마련 초청연주회를 14일 저녁 8시 지퍼홀 풀번스쿨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작년에 이어 남아공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트로넬 말란이 출연해 격조 높은 연주로 가을하늘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번 연주회에서 말란은 하이든의 ‘Piano Sonata in C major, Hob XVI/50’, 피오토르 차이코프스키의 ‘Transfigured Tchaikovsky’, 아이작 미크노브스키의 ‘We sat together’ Op.73 no.1, 프렌즈 리스트의 ‘Valse-Impromptu in A-flat major, S.213’, 로버트 슈만의 ‘Symphon Etudes, Op.13’ 등을 연주했다.

말란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밝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며 건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곡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준호 기자)



KAPC서가주노회는 제38회 정기회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개최했다.

### KAPC서가주노회 제38회 정기회... 목사안수 3명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서가주노회(KAPC, 노회장 정중운 목사)는 제38회 정기회를 지난 11일 오전 10시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오요한 목사의 사회로 나승렬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정중운 목사가 ‘삼상위일체 하나님의 복’(고후13:13)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조해한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이규보 목사의 집례로 열린

성찬식은 이유안 목사가 기도를 했으며 이규보 목사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마26:26-2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창우 목사가 축도했다.

이번 노회는 목사안수식도 함께 열렸는데 박헌성 목사가 ‘주의 종의 자세’(고전4: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김주은 이근수 인대진 등 3명의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도, 축사 변영의 목사로 진행됐다.

변영의 목사는 “은혜 30년사의 출판에 축하한다. 그러나 30년이 되었기에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겠는가?”라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며 “은혜한인교회는 은혜의 메이커다. 주의 이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

## 서부교회 게시판

# west

###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24일(월)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5주 동안 새소식반 전도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강습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습회의 강습비는 무료이며 전도자, 교사, 학부모 등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213)382-1544

### 세리토스장로교회 청년부 새생명전도집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청년부(담임 강주영 목사)는 새생명 전도집회 ‘리얼 라이프 페스티벌 2012’를 28일(금)과 29일(토) 양일간 세리토스장로교회 페이스센터 채플에서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첫날 ‘청년들의 101번째 선택’, 둘째 날 ‘Select’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문의: (562)860-5451

### OC교협 자녀교육 및 교사 세미나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는 ‘SS혁신보고서’의 저자 김만형 박사(애듀네트스 교육개발원 원장) 초청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다음세대의 부흥, 주일학교 성장동력을 찾아오십시오.’라는 주제로 28일(금)부터 10월 1일(월)까지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한다. 일정은 △28일(금) 저녁7시30분 자녀교육 세미나1 △29일(토) 새벽6시 자녀교육세미나2 △29일(토) 오전10시-오후4시 주일학교교사 세미나 △29일(토) 저녁7시30분 자녀교육세미나3, 30일(주) 오후3시 자녀교육세미나4 △10월 1일(월) 오전10시-오후12시 목회자세미나 △10월1일(월) 오후1시-3시 차세대솔루션 목회자 포럼

▲문의: (562)691-0691, (714)699-0210, (562)691-0691

### 제6차 영상설교 세미나

제6차 영상설교 세미나(LA)가 오는 10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영상설교 아카데미 LA지부(회장 광부환 목사) 주최로 열린다. 강사는 김석근 목사(영상설교아카데미 대표)이며 회비는 신규 회원 100달러, 평생회원 300달러, 재료비 50달러(세미나만 참석)이다. 10월 1일 오전10시 오픈강좌로 열리게 되며 세미나 참석 시 준비물은 개인용 노트북이다.

▲문의: 광부환 목사(213)321-4433, 양경선 총무(213)255-1725, 임인철 서기(714)793-3582



은혜의 30년 책자에 사인을 하고 있는 한기홍 목사.

했다. 한기홍 목사는 고전 10:31의 말씀과 함께 “은혜한인교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선교의 역사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힘써 나갈 것”이라고 30년사 발간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날 본 교회 설립자인 김광신 목사가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성령의 능력 받아 땅 끝까지’는

총 400쪽으로 축사의 글과 행사와 보를 비롯해 제 1부 ‘하나님과 동행 30년’, 제 2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 3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선교’, 제 4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제 5부 ‘능력 받아 땅 끝까지’로 구성된 은혜교회 3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게 편집했다. 한편 출판기념 예배에 앞서 국제규격에 맞는 족구장과 농구코트를 갖춘 ‘은혜광장’ 오픈식을 가졌다. 새롭게 오픈된 은혜의 광장은 만남과 교제, 친선의 목적으로 은혜한인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자 기자)

## 후임목회자를 청빙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회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청빙대상

1. K.P.C.A 소속 또는 본 교단에 가입이 가능한 분
2. 정규 신학대학에서 교역학 석사(M.Div)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신 분
3. 이민교회 목회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시고, 연령이 만 45세 이상 56세 미만인 분
4.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 사용에 불편이 없으신 분
5. 미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 제출자료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가족사항 포함)
2.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최근 설교 Tape 또는 CD 2매
5. 교계 원로의 추천서
6. 신앙고백 및 목회 소견서

#### 접수마감

2012년 10월 6일까지

#### 자료보내실곳

John C. Yoo  
1825 Coachwood Ct, Hacienda Heights, CA 91745  
e-mail : pastorjcmn@yahoo.com (전화 문의는 사절합니다)

\*접과는 개별 통지해 드릴 것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청빙이 결정되면 2013년 3월에 노회 가입 절차를 거쳐고, 파트타임으로 현 담임목사님과 1년간 동역하신 후, 2014년 4월 1일부터 본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시게 될 것입니다.  
\*Buena Park 지역에 있는 소규모 교회입니다.

## 가주장로교회

California Presbyterian Church

6575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714) 527-5040, (714) 588-1109  
주일예배 : 일요일 낮 12시 30분, 금요찬양 기도회 : 금요일 저녁 8시.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한국 장로교 설립 100주년을 맞는 2012년 각 교단 총회가 1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이번 총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문제와 이단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17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고신, 백석 등 장로교 주요 교단이 총회를 시작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예장 개혁신(5개 교단 통합총회)은 18일 총회를 개막했다

올 초부터 한국 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된 교회연합기구 문제는 통합과 합동 등 거의 모든 교단 총회에서 주요 문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통합과 백석은 이번 총회에서 한기총 문제와 한교연 가입(추진)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개최될 세계교회협의회

### 주요 교단총회 17일부터 일제히 개막

교단명	일시	장소	주요 사항
예장고신	17-21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전주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의 특정종교편향정책 대책 마련
예장백석	17-20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	-한교연 가입 추진 여부 -목회자 청년제 폐지
예장통합	17-21일	서울 소망교회	-한기총과의 관계 정리 -연교단 배리 문제 처리
예장합동	17-21일	대구성영교회 비전센터	-총회제신교회(GMS) 정상화 -신기제도 변경,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기침	18-21일	강원 춘천 대명비밀리교회	-교단 총무 직선제 -총회목회신학대학원 폐지
예장합신	18-20일	경기 군포제일교회	-노회 지역 조정 -목회자 청년 조정
기침	18-20일	지구교회 봉담성전	-30년만의 규약개정 통과 여부 -한기총과의 관계 정리
예장개혁신(5개 교단 통합총회)	18-20일	서울 미아소망교회	-목회자 청년 연합 청년제 폐지 -여성 안수

### 반기독세력 대처 등 현안 잘 풀어낼까?

(WCC) 부산 총회에 대한 각 교단의 입장 정리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가입 교단인 예장통합과 기침 등은 WCC 총회를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천명한 상태다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속 교단 목사들의 성윤리 및 재정 문제와 관련, '목회

자 윤리강령안' 제정여부가 결정된다. 또 직선제 도입 등 선거제도 변경안도 현안돼 있다. 세계총회 선교회(GMS) 기금 문제와 아이티 구호금 전용 의혹 등 예민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예장통합 총회에는 합동과 반대로 부총회장 선거에 제비뽑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안이 상정된다. 금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

해서는 제비뽑기가 낫다는 이유에서다. 통합총회에서는 총회연계제단의 자금 부실운용 문제가 총회장을 뜨겁게 달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침은 지난 101차 총회 결의에 따라 상정된 규약개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이번 규약개정은 30년 만에 이뤄지는 데다 선거관리위원회 폐지와 은퇴·원로 목사 투표권 폐지와 같은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기도 총회회관 건축헌금과 각 기관의 입주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예장백석 총회에는 현 교단 헌법이 '항존적의 정년은 70세'라고 명시한 항목을 목사만 정년이 없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이 현안됐다

### 교단들 총회 이모저모

○정준모 예장 합동 총회장이 18일 총회에서 감사부·재판부 부원들로부터 일일이 다짐을 받아 내 눈길을 끌었다

하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장대신총회에 이어 예장백석총회도 17일 총회에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가입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해서는 탈퇴를 선언했다

○경기도 성남 지구총교회 분당성전에서 열린 기침 총회장 박대신은 등 기관별로 홍보부스를 마련,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이홍정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다

### 주요교단 총회장 선출

총회장 정준모 목사,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

#### 예장합동

예장합동총회는 17일 대구 성명교회 비전센터에서 97회 총회 첫날 일정을 갖고 논란 끝에 부총회장 정준모(대구 성명교회) 목사를 총회장에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 직후부터 거센 논쟁이 벌어져 험로를 예고했다. 1338명의 총대들은 용역 동일과 총회임원 후보의 노래주점 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정준모 총회장 안명환 부총회장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진실규명 차원에서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

총회가 이 문제를 다룬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가슴에 묻어두고 이후에 법적으로 처리하자

총회장 손달익 목사, 부총회장 김동업 목사

#### 예장통합

예장통합총회 신임 부총회장에 김동업(64·목민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통합총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그리스도인, 작은이들의 빛'을 주제로 제97회 총회를 열고 3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손달익 총회장 김동업 부총회장

임 총회장은 부총회장인 손달익 목사가 이어받았다. 기타 임원으로는 서기 류영모(서울서북교회), 부서기 김진홍(충북노회) 목사, 회록서기 신형호(전주노회) 목사, 부회록서기 민경자(서울서북교회), 회계 김영환(서울동남노회), 부회계 이형규(서울남노회) 장로가 각각 임명됐다

한 현실에서 중책을 맡아 중압감이 다가온다

은 이들의 빛이 되고 목회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총회장에 박정원·부총회장에 주준태 목사

#### 예장고신

예장고신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현 부총회장 박정원(68) 대연중앙교회 목사가 새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예장 고신은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민족과 영랑을 위한 고신교회 회복과 성장'(행 1:12-14)을 주제로 총회를 개최했다



▲박정원 총회장 주준태 부총회장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동부산노회 연합당회장, 총회 북한선교 전문위원, 총회 6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장 등을 지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례복음**

복음서들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저자 및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서는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바례복음의 깊이와 깊이를 이해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탁월하고 풍부한 해석적 안목을 제공해 줄 것이다.

http://www.israelecademy.com  
6월부터 이스라엘 입문자를 위한 6주간 과정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풍습,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의 계층적 식음까지도 알비운한을 토대로 자세히 소개해 줄 것이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장재일 목사

- 홍익대학교 교수
- 예수칼럼네대학성경사범대학 석사
- 현세이원대학교 석사
- 현세이원대학교 총장
- 현세이원대학교 총장
- 현세이원대학교 총장

SEOUL BOOK FAIR 2012

6.20. - 24. COEX A/B홀

www.sbf.or.kr

### 우간다

쿠미프로젝트 8월의 소식을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호세아 6:1, 2)

동역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몇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과 협의해야 할 일들 때문에 잠시 귀국해서 접한 한국의 날씨, 말로만 듣던 무더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은 우간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바람으로, 비로 겹친 태풍 때문에 힘들어진 이웃들의 모습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께서 친히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의 첫 소식으로는 의과대 사용할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아직 의과대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컴퓨터 랩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 랩에는 여러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노트북과 기아대책에서 후원하신 넷북으로만 구성되어 사용하기로 하여 첫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방에 전자책 설비도 함께 갖추어서 명실상부한 e-library 겸 컴퓨터정보실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달에도 8분(김연희, 전은석, 강대영, 남재만, 울더베스트, 남창희, 한표성, 무명)이 13대를 후원해주셔서 전 부 67대가 되었습니다. 일차 목표인 100대를 거의 채워가고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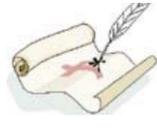
또한 해부학 실험실로 사용할 건물을 의과대 강의동 뒤쪽에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50% 이상의 공정을 끝내었기에 9월 중에는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실습기자재들도 잘 채워질 것입니다. 이 실험실에는 아직도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들도 잘 준비할 수 있

게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과대학 인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고등교육위원회의 허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곳 우간다 의료진과의 협의체제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 받았는데, 이분들의 일정들이 너무 바빠서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께서 세밀히 간섭하셔서 9월 중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어진 기자재를 사용할 실습실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고 있는 과학관의 건축 공사 재개가 우간다 교육부의 계속적 지원이 지체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자체자금으로 이 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꽤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 실험실 없는 인가가 어려우므로 자체자금으로 완성하든지, 아니면 종합실험실 건물만 따로 건축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부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의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 기자재를 기증해주신 제이오텍 김진영 집사님은 지난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pouts of Water에서 짓는 세라믹정수필터공장도 고로를 만들고, 전기 및 물도 부분적으로 연결하였고, 몇가지 기계들을 설치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 중에는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는 학생대표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공장 학교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을 위한 태양광설비가 필수적인데, 기증받은 73장의 판넬을 이곳까지 운반하는 데만 천여만원의 비용이 들고 필요한 배터리 등도 구입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비용도 잘 마련되어져서 하루빨리 들어와 설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지 편지

쿠미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의과대학, 농과대학 그리고 에너지학과나 biotechnology학과에 관한 일들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충남대 의대, 농대, 충북대 의대, 서울대 공대 등)과 나농과학기술 연구소 등의 관계자 분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함께하시며 준비해주시는 분들, 쿠미대학교의 교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준비하여 우간다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8월 중순부터 신입생들을 받고, 새 학년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의 준비부족과 여러 여건들이 겹쳐서 기대만큼 신입생이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기도하면서 노력하여서 이 부분도 개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도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새 학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내주시는 문헌류, 김영신, 추수진, 노효선 네분의 박사교수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서 이들 부분에서도 큰 힘이 되고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네분 교수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게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기를 준비하시는 몇 분의 교수님들도 잘 마무리되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각종 기록물과 영상, 홍보물 등을 담당하실 분과 guest house를 섬기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잘 준비되어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간다 쿠미땅에서 쿠미프로젝트 김선영 드림 이메일: sykim@cnu.ac.kr

### 케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 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 세상에 있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6 하-7)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Buffalo, NY에서 문안드립니다.

7월 8일 가리사 지역에서는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AIC교단의 가리사 교회에 무슬림들이 수류탄 2개를 던졌으나 불발했습니다. 지붕 위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평소에도 가끔 돌맹이를 던지곤 해서 이 날도 돌맹이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수류탄이 불발하자 무장한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찬양인도를 하던 젊은 교우들에게 총을 난사해 17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의 처제가 죽고, 사모님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와 무슬림이 함께 하는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명의 피해 없이 복음이 원만하게 증거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냐 북동쪽 가리사 지역 타나 강 유역에 거주하는 올마 부족(Orma)과 포코모(Pokomo) 부족 간의 물과 소와 양들이 먹을 풀로 인한 다툼이 확산되어 60여명이 죽고 부상당하는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두 부족 간의 다툼이 빨리 종식되어 화해와 용서로 인한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7월 6일까지 강의를 마치고 11일까지 학기말고사를 치고, 채점하고 7월 12일 마시기를 떠났습니다. 강의, 선교사 훈련학교와 게스트하우스 건축 등 안식년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로 분주하기는 했지만 계획했던 부분까지 마치고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셨던 분들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으매 감사를 드립니다.

### 게스트하우스 건축 현황

유치원 교사훈련원은 3명의 학생들이 24과목을 마치고 교생 실습을 3개월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학교에서 교생 실습하는 학생들을 다섯번 점검하고, 교육청에서 한 번 더 나와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11월에 정부에서 하는 시험에 2명의 학생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잘 치를 수 있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은 조금 더 실습을 하고 내년엔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 교사 훈련원과 유치원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이 나왔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여러 곳에서 인스펙션이 있을 것이고, 그 서류가 접수되면 6개월에서 1년반 안에 허가증이 나올 것입니다. 유리창도 없고,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2013년 1월에 유치원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현지 노회의 노회장이 요청을 해 와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노회장의 인도 아래 유치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부터 시작한 이번 팀의 4년간의 사역 후 가지는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혜가 이태카 대학에서, 넷째 미해가 로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둘째 인해도 근처 버팔로에서 그동안 중단하였던 학업을 다시 하기로 하여 저희들도 아이들 곁에서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날씨가 따뜻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라는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버팔로에 아는 분이 없어서 정착하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아파트를 얻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영과 육이 재충전하며, 다음 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더불어 학교들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사역은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다음 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케냐학생들을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좀 더 깊이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준비를 시켜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AIM에서도 오랜 동안 기도해오고 있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사역입니다. 혼자는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도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옵니다. 그만큼 환경도 열악하고 힘들고 답습니다. 저희가 있는 마싱가는 같은 타나 강을 끼고 있기에 그곳의 환경과 비슷하고, 학생들은 보통 1-2시간 걸어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현지 교단과 저희 학교, 교사훈련 학교에서 훈련하여 같이 일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고서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Buffalo, NY에서 이사야(이영호), 이에경 선교사 드립니다. 이메일: isaiah.lee@aimint.net, isaiah0814@gmail.com

## 신천지 신도 7만명 대규모 집회 16일 주일예배 참석안했다면 ‘추수꾼’ 의심자

“교회 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성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16일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진용식 목사)

16일 주일예배 참석 여부가 교회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신천지 추

수꾼을 가려내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천지 신도라면 누구나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평화·광복 하늘문화 예술제전’에 의무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이 대회는 신천지의 세력을 과시하는 스포츠 문화 퍼포먼스 행사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7만여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총집결한다. 대회는 지난 14일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사단법인 만남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 100개국 20여만명이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해 참여한다”고 자랑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대회다. 신천지 신도들은 지방(지역)별로

카드섹션을 준비하고 축구 농구 족구 줄다리기 마라톤 등 스포츠 경기는 물론 야간공연과 퍼레이드 대동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추수꾼이라면 새벽에 상경해 밤늦게 귀향할 수밖에 없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구리상담소장은 “16일 대회야말로 신천지 골수들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면서 “지방에선 새벽부터 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뒤 행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교회의 예배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소장은 이어 “전국의 신도들을 오전 8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 집결시키고 대규모 카드섹션을 위해 14시간 동안 자리 이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서울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추수꾼 역시 예배 참석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 진용식(안산 삼복교회) 목사도 “신천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만남’이라는 위장 봉사단체와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신천지 본부에서 대회에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는 지침을 내렸기에 전국교회는 주일 출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 가정사역 칼럼



## 미리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라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연인 사이에 '체감의 법칙'이란 처음엔 손만 잡지만 손잡으면 입을 맞추고 싶고 차츰 진한 포옹이나 페팅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성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는 일단 접어들면 멈추기 힘들고, 애써 멈출 경우에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또 한때는 흥분과 만족을 주던 행위가 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육체적인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서로 사귀기 때에는 스킨십의 한계를 미리 정해 놓자. 이렇게 제안해보자. "\_\_\_ 씨,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_\_\_ 범위 안에서 사랑해 주십시오." "\_\_\_ 씨, 저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_\_\_ 범위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성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절제가 어렵고, 남자가 절제가 어려워지면 여자 역시 거부하기 힘들게 된다. 많은 믿음의 청년들도 너무 쉽게 육체적인 관계(성 관계)를 허용한 후, 애정이 식거나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느라 헤어지게 되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경우, 자매들도 처음에는 키스 정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키스나 진한 스킨십으로 애정을 표현하다가 다음 단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사랑 표현을 키스나 진한 스킨십으로 하면 유혹에

성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나친 스킨십 요구에 응대하려 하거나 무안을 주기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자매들은 이성교제, 결혼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형제들은 여러 성취해야 할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리고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아도(비록 처음에는 사랑하는 듯 생각했지만) 스킨십뿐만 아니라 성교까지 가려 한다는 사실을 자매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남성의 심리는 사귀는 여성의 몸을 충동적으로 탐하면서 막상 여성이 몸을 허락할 경우에는 '과거가 있는 여자가 아닐까?' '믿을 수 없는 여자 같아!' '여자가 너무 해프면 안 되는데'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성이 먼저 성 관계를 요구했다면 몸을 허락한 여성을 회피하거나 싫어하거나 애뜻한 마음을 갖지 못하거나 한다.

물론 관계를 맺은 여성을 책임지려 하는 남성도 있다. 그러나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이 남자는 책임지는 남자겠지?'라며 도박하는 마음으로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한계를 정하고 분명하게 'NO!'를 지키라

남성들은 음담패설을 듣거나 비디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적 자극을 받는다.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자매들이 'NO!'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훈련이 필요

## 여자보다 충동적인 남자특성 이해하고 절제해야 거절은 분명하게...자신의 의사 확실하게 밝혀야

빠지기 쉽다. 그러다가 결국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

청춘 남녀 사이에는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했다. 자신이 모든 유혹에 강하다고 자신하는가? 이미 체감의 법칙을 경험하고 그 회한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음으로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남성은 스킨십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고 확인하려 한다.

아무리 사랑해서 했던 행동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동물적인 욕정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랑의 맹세가 굳어도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기로 하고 성 관계까지 가졌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여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약혼 후 합의하여 관계를 가졌지만 불신감과 죄책감 때문에 둘 사이가 급속히 멀어지고 급기야 파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결혼이 확정되어도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는 절제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여

하다. 형제는 처음에는 좌절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도 있게 행하는 모습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성으로 존중하게 된다.

여성도 남성이 거절감을 느낄까봐 싫어하는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남성들은 여성들이 마음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내숭을 떠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YES'와 'NO'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여성들은 어른들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NO'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지킬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한다.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말하라.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난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요.'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제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싫다고 하는데 자주 강요하니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러면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두 사람의 만남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거룩하게 만나도록 애써야 한다. 거룩한 만남을 위해 한계를 정하고 분명하게 'NO!'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만남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지혜가 주는 유익 (잠2:10-22) 찬98장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얻을 때 찾아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 영혼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10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한대로 잠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주로 인정돼 모든 일을 평정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악인의 유혹에서 벗어

나게 합니다. 11-15절에는 악인의 패역에서의 구원을 16-19절에는 음녀의 유혹에 서의 구원을 말해줍니다. 적극적인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셋째, 의의 길로 계속 가게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신자에게 물려오는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은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절대 보호는 물론,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 화 복의 원리 (잠3:1-6) 찬28장

잠언은 장수, 평강, 명예 그리고 인도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째,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1-2).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과 명령의 형태로 된 것은 우리가 지키기에 간편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자와 진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명예를 얻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무엇인가? 사랑과 참으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

다. 성경을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따르면 그의 삶에는 이런 사랑을 맛보고 진실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법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아는 항해가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와 인도를 받을 때 형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합니다.

## 수 견고한 믿음 (잠3:21-26) 찬343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를 지키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어떤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충만한 생명, 형통의 역사(25),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얻습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일보다 다른 것에 힘을 더 소모하는 사람이 많은 때에 여호와 경외를 사모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둘째, 믿음을 파수하기위하여 무엇해야 합니까? 회

개와 기도회 힘써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써야합니다.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한 야고보와 환도뼈가 위골되기 까지 기도한 아람처럼 많은 수고를 드러야합니다. 엉뚱한 일에 힘을 쏟는 이 시대에 가장 값진 경외신앙에 헌신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비전을 품고 살아갑시다.

## 목 관계의 정도 (잠3:27-35) 찬278장

이웃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 악한 자에 대해 가르치기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가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옆에서 언연히 살거든 모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27-31). 악한 자에 대한 긍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이기 때문입니다(약1:27). 둘째, 악인에 대해 다루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거나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행동을 하나님께 말하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의인과 악인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나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의인은 은혜를 받지만 악인은 비웃음을 당한다고 했으며 의인은 영광의 기쁨을 받지만 악인은 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잠1:7-19).

## 금 지혜를 사랑하라 (잠4:1-9) 찬499장

지혜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째, 어떻게 지혜와의 관계를 가질까요? 본문의 지혜, 훈계, 명철이란 말은 각각 지혜의 특성을 보인 용어들입니다. 네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들어야하며(1, 5, 7), 마음에 품고 잘 지켜야하며, 사랑하고(6) 높여야하며(8).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리킨 것입니다. 둘째,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 살아나고(4) 보호

를 받으며(6) 존귀하게 됩니다(9). 이 복을 내 것으로 삼기위하여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합니다. 잠언에서 반복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복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가 내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의 욕이란 것입니다. 성령을 좇음으로서만 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 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잠4:10-19) 찬8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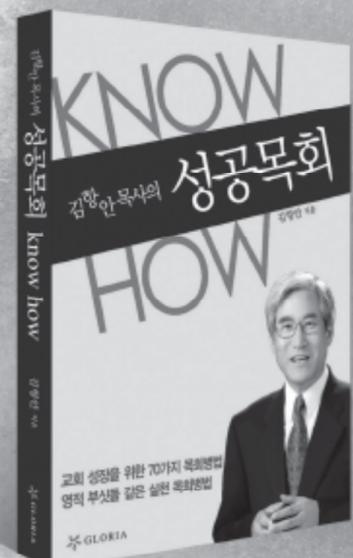
본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떻게 비교할까요?

첫째, 의인은 돌은 해처럼 빛납니다(10-13). 의인의 길이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삶을 가리키며 돌은 해와 낮의 광명처럼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장래의 밝음을 무엇으로 보장할까요? 의인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된 삶을 힘써 지키는데 있습니다.

둘째, 악인의 길은 어둠에서 살아갑니다(14-17).

악인의 길은 사특한 자의 길입니다. 악행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도의 술을 마시며 불의와 연합된 삶을 힘씁니다. 19절이 보이대로 "어두움" 때문에 넘어져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기는 삶을 누리지 못하면 어두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낮의 햇빛처럼 가장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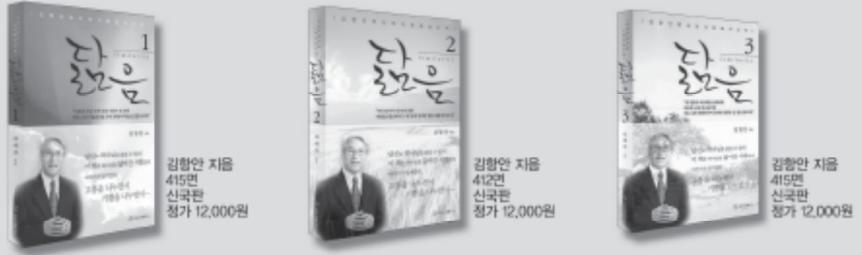
## 김항안 목사가 전하는 실천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공 목회가 되게 하는 70가지의 목회방법



김항안 저음 384쪽 신국판 정가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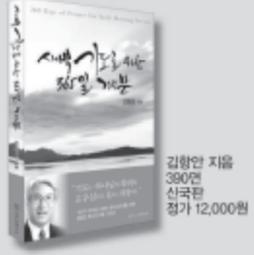
28년 동안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를 통해 한국교회에 소개된 영적 부신타와 같은 실천목회의 Know How와 Know Where가 담긴 목회방법!!!

## 김항안 목사가 시편 150편을 새롭게 조명한 기독교 영성 안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출판부분 우수도서 선정



시편 150편에 담긴 기독교영성의 맥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대비시켜 영성의 맥을 알게 해 주는 영성회복의 내비게이션!!!

## 김항안 목사가 새한국중앙교회에서 행한 일 년 365일 새벽기도 대표기도문



김항안 저음 390면 신국판 정가 12,000원

기도는 자기의 무능을 한풀이하는 '성도대회'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옷 입는 과정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다.



김항안 목사 철학박사, 신교학박사

목회 교육대학, 기쁨대학, 중앙대학교 대학원 장로회 신학대학원, 미국 브리검 신학대학원, 연원대학, 배틀런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강남 대학, 중희 신학, 서울 신학대 동대학원 강사, 아세아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교회정보센터 대표, 글로벌 선교의 대표, 새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기독교 윤리의 원천', '절기 예배의 이론과 실제', '갑동적인 고난주간을 위하여', '복음적인 설교와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능력회복 교회성장', '목회자의 영적순사와 교회성장', '대포기도랜드', '감사하는 영혼의 양식 현상기도', '일만 번 주기도 하라', '아이들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크리스천 사방교육법', '말씀', '1807-0202 복음적인 예배의 설교를 위하여', '대박기 드를 위한 365일 기도문, 위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4) 지용주 목사 (보아즈프로젝트 대표)

미주지역 난민들을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보아즈프로젝트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해 그들의 가족과 민족이 하나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라큐스한인교회를 담임하며 보아즈프로젝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지용주 목사. 그는 미주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이 야말로 준비된 선교사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열매가 더 맺힐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용주 목사는 미국에 연간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입국하고 있으며 그들은 대부분 복음이 전해지지 힘든 나라에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용주 목사

고 있으며 힌두교도들이었던 두 명의 난민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세례를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주지역에 난민센터가 있는데 특히 대도시엔 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가장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LA이며, 뉴욕, 산호세 등에도 많다. LA의 경우 연간 12,000명에서 15,000명가량 유입이 되고 있다. 시라큐스는 중소도시인데 연간 700명의 난민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난민사역의 황금어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지 목사는 이러한 난민들을 위한 사역에 한인들이 적극이라고 말했다. 특히 1세대인 경우 영어가 능숙치 못한 것이 난민들에게 동질감을 갖게 한다며 그들이 한인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에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 한인1세대의 역할이 중요하

21개국 망명자들에 IT와 컴퓨터기술 가르쳐 영어미숙 1세대들에게 동질감 가져 접근 용이

복음이 편지 모르는 약속되지 않은 사람들(unengaged people)인데 그들을 복음으로 약속된 사람들(engaged people)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팀을 만들어 현지로 떠납니다. 장기 혹은 단기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주변에 있는 약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데 말이죠. 즉 우리 뒤뜰이 바로 미션필드가 형성돼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즈 프로젝트는 이방어인인 루이 예루살렘에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왔지만 보아즈를 만나게 된 것 처럼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보아즈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에서 착안한 사역이다. 보아즈는 예수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현재 보아즈프로젝트에 21개 나라가 연결돼있다. 대부분 시라큐스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며 그중 15개 국가가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지 않은 10/14원도우와 4/14 원도우가 만나는 지역의 국가이며 그곳

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난민들은 대부분 정치적, 종교적 망명자들이다. 미얀마 등 불교가 강성한 국가, 힌두교가 강성한 네팔, 부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며 버팔로의 경우 이란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무더기로 넘어온 민족들이다.

지 목사는 이들 난민들은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난민촌 내에 마련된 거주공간에 17명이 모여 산다 고 밝혔다. 그들은 미국정부에서 3개월분의 생활비를 제공받고 살고 있으며 정부의 주선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공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아즈 프로젝트에서는 그들을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IT와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컴퓨터기술을 익힌 난민들은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것에서 모델과 호텔의 레지스터 등 오피스 잡 등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민들은 컴퓨터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난민촌으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컴퓨터기술을 가르칩니다. 컴퓨터를 다루려면 타이핑이 능숙해야 하는데 성경을 타이핑하게 해서 숙달되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

지고 한 학기(10주)동안 컴퓨터 기술을 연마하게 한 후 프리젠테이션을 시키게 했으며 그 결과 그들에게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 하나는 소망이 없었는데(Hopeless) 소망(Hope)을 갖게 됐으며 두 번째는 사랑을 몰랐는데(Loveless) 사랑(Love)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현재 보아즈프로젝트를 통해 맺은 열매들로는 중국 천안문 소요에 관련된 자가 망명을 왔는데 그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한국말도 하지 못한 오직 중국어만 할 줄 아는 자였다. 그가 지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중인 시라큐스한인교회에 나오게 되고 보아즈프로젝트의 최대의 열매가 됐다고 설명했다.

“마침 저희교회에 중문과를 나와 중국어통역이 가능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통해 그가 1년간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8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1년 후 중국인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3년간 신학교육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저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뉴욕 플러싱에서 중국인교회 개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어느 자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을 받은 후 시라큐스대학교에 입학해 어카운트를 전공하

고 귀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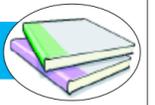
해마다 여름철에 1주일간 VBS(여름성경학교)를 열게 되는데 난민촌에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인다. 그들 중에는 1주일동안 VBS를 통해 50%정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영접한 아이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며 이들을 초청해 식사대접 등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한다.

지용주 목사는 시라큐스한인교회가 속한 PCUSA교단 내의 Compassion Justice Grant 제도를 통해 그랜트를 받아 뉴욕 주에서 마틴루터 킹 인권상을 수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보아즈프로젝트와 같이 난민들을 위한 사역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 한번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갈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이 난민사역을 통해 우리 이웃이 돼버린 난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아즈프로젝트의 대표인 지용주 목사의 연락처는 (315)474-8346, workman4yeshua@gmail.com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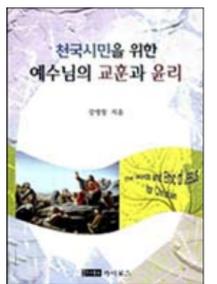
새책 소개



“천국시민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

저자 강영창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장로신학대학교 부학장과 서노회장을 역임한 강영창 목사가 ‘천국시민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도서출판 카이로스, 535쪽)를 펴냈다. 본서에 대해 저자는 신학대학에서 산상교훈을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로 강의했던 교재를 기초로 해 설교원고와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다룰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쳤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서기관처럼 외치게 되니 죄책감과 무능함을 숨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며 천국시민으로서의 생활을 다짐하고 반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가게 돼야한다고 다짐하곤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회심과 중생의 체험, 성령의 내재하심을 전제로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하고 미국에 오면 미국 시민의

천국시민으로서 삶 가르치는 산상설교 정리

권리와 함께 미국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자 강 목사는 이 책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를 보다 충실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명령하는 바대로 천국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실천하며 반석위에 집을 짓는 참 제자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본서는 제 1장 ‘산상설교의 안내’, 제 2장 ‘천국시민의 생활 원리’, 제 3장 ‘천국시민의 생활 내용’, 제 4장 ‘천국시민이 경계할 것’, 제 5장 ‘산상설교의 반응’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산상설교의 이해와 전사, 비평, 구조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교까지 게재 되어 있다. 또한 2장에서는 팔복의 서론과 천국시민의 성품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이외에도 천국시민으로서의 자선, 기도, 금식, 물질 등에 관한 바른 생활 지표를 잘 조명하고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산상수훈을 듣는 이들의 반응이 수록되었으며 산상수훈의 올바른 교훈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다.

▲저자 연락처: (714)526-8483

(이성자 기자)

창립 32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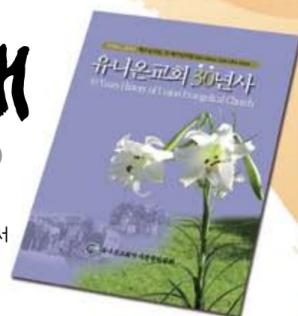
유니온교회 30년사 출판감사예배

Union Evangelical Church 3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Worship

“성삼위 하나님께서 유니온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게 하고, 특히 유니온교회 장래를 이을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유산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편집과 출판을 진행하려 합니다.” 30년사 편집계획의 최대 원칙 중에서

남가주 지역에서 함께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교회, 모든 동역자분들과 유니온의 32년 역사 속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유니온가족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2012년 9월 30일(주일) 오후 4:00, 유니온교회 예배센터



창립기념주일  
흥커밍데이  
2012/9/30(주)  
1부예배/오전8:00  
3부예배/오전11:30

유니온 30년사  
출판감사예배  
2012/9/30(주)  
오후 4:00  
예배센터

유니온교회 출신 사역자 초청  
특별금요집회  
2012/9/28(금)  
오후 8:00  
신승훈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2012/10/5(금)  
오후 8:00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012/10/12(금)  
오후 8:00  
전길성 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담임목사 문병용 창립원로목사 이정근 30년사편집위원장 김주영

시무장로 김주영 강경석 권영태 변국현 유상열 이동기 이하우 정동근  
원로장로 김규남 김영준 백문철 이성우 영예장로 김강박 김병삼 원태연 이기재 배궁조  
부목사 권순광 임병희 조우주 유원선 홍일현 전도사 정한욱 이현노 이사야 Sam Roberson  
영동목사 차성준

www.unionch.org 주소 |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91791 전화 | +1\_626\_858\_8300~2 팩스 | +1\_626\_858\_8303

미주성결교회  
유니온교회  
Union Evangelical Church